

“저는 SF가 없었더라면 체코 대사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SF/판타지 소설의 외교관 야로슬라브 울샤 Jr. 주한 체코 대사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정성원(《판타스틱》 대표)
번역 도움 · 최현빈(번역가)



야로슬라브 울샤 Jr.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SF/판타지의 재미에 빠져 있는지 쉽게 알게 된다. 그는 “SF/판타지 소설의 외교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체코 SF/판타지 소설들을 소개하고, 각국의 소설들을 모으는 데에 열정적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언제나 SF/판타지 소설들이 화제가 된다. 그럴 때면 그는 외교관이 되기보다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느낌은 딱딱 잘 통하는” 장르소설 팬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1964년생인 그는 이미 1985년에 그의 첫 SF 팬진인 《이카리 XB》을 창간했고, 공산정권 몰락 후 체코의 첫 SF월간지 《이카리》를 창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고 이어 스스로

AFSF출판사를 설립하여 80종이 넘는 SF와 판타지 책들을 출간했다. 1992년부터 외교관 업무를 시작하여 아프리카 담당 국장으로 일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짐바브웨 주재 체코 대사로 일했고, 2008년 9월에 주한 체코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울샤 Jr. 대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체코와 여러 나라의 SF/판타지 문학과 에피소드들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락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혹시 용어 선택을 비롯한 번역 및 편집상의 오류와 실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선 《판타스틱》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어린 시절부터 SF를 접하다

¶ **판타스틱(이후 판)** 대사님께선 아주 어렸을 때부터 SF/판타지의 애독자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울샤 대사(이후 울샤)** 제 친구이자 동료인 SF 작가 온드레이 네프는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SF를 즐겨 읽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즐겨 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나이 때 좋아하면, 아마 평생을 두고 좋아하겠지요. 전 십대 초반에 하루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어요. 고고학에서 알프스 등반에 대한 책까지 다양한 책들을 섭렵했지만, 두 번 이상 읽고 싶었던 책들은 거의 다 SF였습니다.

¶ **판** 열다섯 살이 되기 전까지 주로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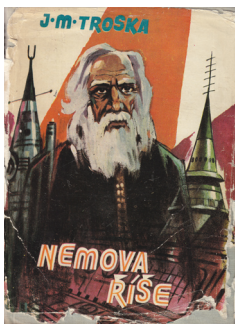
¶ **울샤**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읽었던 SF 작품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죠. 쥘 베른의 소설들과 30년대



야로슬라브 울샤 Jr. 대사

체코 SF 작가인 트로스카(1881~1961)를 즐겨 읽었어요. 트로스카의 삼부작 《네모선장》(1939), 《우주 전쟁》(1940~41)을 가장 좋아했어요. 유럽 SF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죠. 만약에 영어로 쓰였더라면 건즈백이 당장에 자기 SF 잡지에 실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로스카의 작품들은 48년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중요성도 가치도 없는 퇴폐모험 소설로 분류되어 도서관에서 사라졌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재발행되었을 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첫번째 삼부작은 절대적인 파워를 지닌 네모 선장이 지구 심층부의 완전히 로봇화된

사회를 이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번째 삼부작은 체코의 젊은 우주 여행자들이 태양계의 다른 외계인들과 갈등을 빚는 내용입니다. 당시 열 살이었던 저나 다른 친구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이었죠.



트로스카의 《네모 선장》

❗ 판 당시에는 영미권의 책들이 소개되지 않았는지요?

❗ 을사 70년대에서 80년대에 출간된 SF 작품들은 스무 종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책들은 대개 폴란드와 러시아 소설들의 번역본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선 두 국가의 소설들이 가장 뛰어났으니까요. SF를 좋아하는 체코 사람들은 폴란드와 러시아 SF 소설들의 전문가가 될 정도였습니다. 폴란드의 스타니스와프 렘과 소비에트 연방의 스프루가쯔키 형제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미권의 SF 번역본은 거의 없었어요. 20년간 30종 정도만 번역되었습니다. 알디스의 《논스톱》, 폴 앤더슨의 《타임 패트롤》, 이름이 러시아 사람 같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 여섯 권 정도였죠.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은 거의 다 번역이 되었지만, 켈라즈니나 실버버그 같은 작가는 거

의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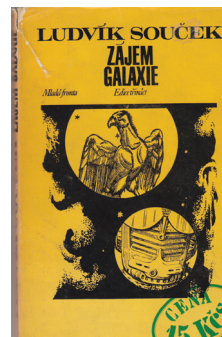
합법과 불법 사이에 선 SF

❗ 판 그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 전이었고 사회주의국가였죠. 이른바 공산정권 하에서의 SF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 을사 공산정권하에서의 출판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의 승인 없는 아무도 책 한 권, 잡지 한 권 낼 수 없었습니다. 검열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통제가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막았지요.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은 인쇄기계를 소유할 수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등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목지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밀어 인쇄를 해야 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 전혀 없는 책 300부 정도를 겨우 찍어낼 수 있었지요. 작은 회사들이 전단지 만드는 데에 사용하던 등사기를 SF 클럽들은 첫 팬진을 찍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팬진들은 “거의” 합법적이거나 “완전히” 불법적인 것 사이의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워낙 부수를 적게 찍기도 했고 내용도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비밀경찰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팬진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80년대에 점점 활동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실은 80년대에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에 갑작스럽게 SF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군의관으로 2년간 지내기도 했던 루드빅 수책(1926~1978)의 짧은 기고

문으로 시작되었는데, SF 독자들에게 SF 클럽을 만들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죠. 그는 그 글을 발표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공산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70년대에 SF를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작가였죠. 그 글 또한 검열을 통과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에 프라하, 필첸, 파르두비체, 테플리체 등지에서 SF 클럽이 생겨났습니다. 82년에는 파르두비체에서 “파르콘”이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SF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전 우연히 그 기사를 읽고는, 조직위원 중 한 분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하의 SF 클럽에 참여하게 되었고 팬덤 활동을 시작했죠.



루드빅 수책의 저서

SF 팬덤의 노력이 SF를 살렸다

❗ 판 체코의 SF 팬덤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 수 있는지요?

❗ 을사 체코의 SF 팬덤은 전국적으로 합쳐봐야 몇백 명 되지 않는 작은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SF 소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팬 각자가 어떤

언어로 된 SF든지 체코어로 번역해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전 폴란드의 첫 SF 월간지 판타스티카(Fantastyka)를 몇 권 가지고 있었는데, 폴란드어에 능숙했던 덕에 여기에서 몇 편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자로서의 제 팬덤 “커리어”가 시작되었죠. 체코의 이름난 문학잡지 편집장 중 한 분이 제 번역이 좋다고 격려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이런 이상한 우연과 인연들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83년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 삶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었겠죠. 그의 말을 따라 폴란드 SF 잡지와 팬진에 실린 SF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폴란드의 작가와 편집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체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사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폴란드의 반대파 세력이 내는 불법 출간물들이 늘어나자, 체코슬로바키아로 들어오는 모든 인쇄물들은 여러 루트를 만들어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80년대의 팬진들을 보면 영미권 SF는 폴란드어의 중역본들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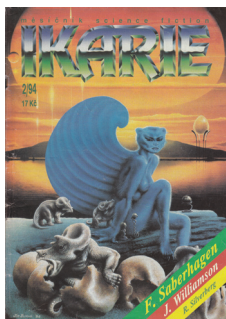
❗ 판 80년대 후반의 SF 팬덤은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에 더욱 발전하여 출판사까지 만들게 됩니다.

❗ 을사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SF를 출판하고 싶어 했어요.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에 팬진 《레이저》는 필첸 시에서 같은 이름으로 출판사를 열었어요. 이 출판사는 200여 종의 SF 작품을 냈고, 팬들이 시작한 SF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팬진들도 출판사를 세웠죠. 이런 사건들이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 모두 SF 작품의 출간은 이런 SF 전문 출판사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SF 전문 출판사들을 밀어내려던 대형 출판사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죠.

❗ 판 체코의 첫 SF 전문 잡지에 참여하신 분으로, 그 탄생에 얽힌 사연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을사 SF 팬덤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전문적인 SF 편집자가 되고 싶었어요. 당시엔 SF 잡지나 출판사가 하나도 없어서 “전문적인” 것이 전혀 없었지만, 어쨌거나 《이카리 XB》 팬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꿈을 키웠죠. 온드레이 네프가 SF 전문 잡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그 잡지의 편집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일이었고요. 90년 봄에 네프의 집에서 그 잡지의 첫번째 편집회가 열렸을 때에, 전 제가 만들었던 팬진에 기반을 둔 틀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이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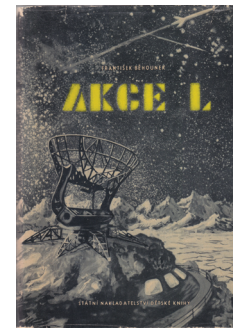
없었고, 더 좋은 방안도 없고 시간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제안대로 잡지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체호 또한 유명한 체코 SF 영화와 제 팬진의 이름을 따라 《이카리》로 결정되었죠.

잡지의 3분의 1은 번역 SF(주로 영미권이었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작품들도 포함됐죠.)로, 3분의 1은 유명 작가든 신인이든 국내 작품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논픽션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논픽션은 SF 역사나 이론, 책 리뷰, SF 영화 그리고 SF 컨벤션이나 게임 소개, 그림 등으로 하기로 했죠. 올해 《이카리》는 250호를 내는데 아직도 그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4 크기에 64 페이지, 커버는 컬러로 하고, 본문은 흑백으로 하고……. 바뀐 건 편집위원들뿐이죠.

사회주의는 SF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 판 “사회주의 SF”가 있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배경이 체코슬로바키아의 SF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을사 45년 독립국가가 된 후에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강한 영향력하에 있었습니다. 48년 이후의 공산정권의 통치는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에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주었고, SF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출판되었던 대다수의 책들이 새로운 공산사회에 “부적합”하다거나 “위험”하다는 딱지가 붙어 서점에서는 물론이고 도서관에서조차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50년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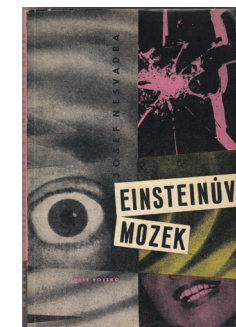


비에후네크의 《작전 I》

체코 문화 전반에 있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SF의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5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아무 작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F 출판을 허가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자물리학자였던 프란티세크 비에후네크(1898~1973)뿐이었죠. 그가 쓴 일곱 편의 SF 중 하나인 《작전 I》(1956)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미래의 공산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탐험하는 내용의 이 책은 공산정권하에서 청소년문학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어 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사이에 초등학교를 다닌 체코와 슬로바키아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책이었죠. 굉장한 발명품을 사용하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계를 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내용인데, 그 어떤 소년이든 한번 꾸어볼 만한 꿈이었죠. 비에후네크와 동시대 작가들은 20세기 중반의 소비에트 SF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40년대의 소비에트는 문학에서 “개발 가

능한” 발명품을 제시하게 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당겨,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근거리 목표물” SF를 많이 출간하게 한 것이죠.

과학기술이 주된 주제였던 러시아 SF가 수십년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체코 SF는 곧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요제프 네스바트바(1926~2004)의 두번째 작품 《아인슈타인의 뇌》(1960)는 공산정권하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 SF의 걸작으로 체코문학사를 풍부하게 만든 작품이었죠. 60년대에 잠시 불었던 자유화의 바람 속에서 체제비판적인 독보적인 두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스트미르 베데렉의 《낙원으로부터의 귀환》(1961)과 이리 마렉의 《즐거운 시대》(1967)



네스바트바의 《아인슈타인의 뇌》

가 그것인데, 전자는 컴퓨터로 통제, 통치되는 디스토피아 사회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고, 후자는 “프라하의 봄” 항쟁 직전에 출간되어 공산정권을 혹독하게 비판했죠. 70년대 이후 예술가들의 독립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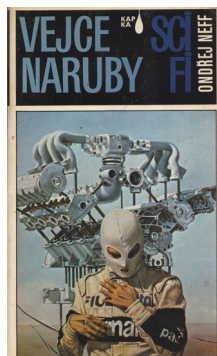
활동이 완전히 통제된 후 두 작품은 모두 출간 금지되었습니다. 베데렉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탈출하여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마렉은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잊혀진 채로 여생을 보냈죠.

SF로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 판 그 이후의 시기에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요?

❗ 을사 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새로운 SF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작가가 야로슬라브 바이스(1946~)와 츠데빅 볼니(1946~)입니다. 바이스는 네스바드바의 문체를 계승하여 짧고, 재치 있고, 인상적인 단편들을 썼죠. 그는 곧 유명해졌지만 그 유명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후에 공식적으로 밝힌 후에야 그 까닭이 밝혀졌는데, 그 단편들 중 절반이 친구 알렉산드르 크라머(1946~)가 쓴 것이었죠. 사회주의 반대 정치 활동을 하던 크라머에게는 출판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름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83년에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 SF 선집 두권이 발간되었는데, 유명 작가 작품도 있었지만 SF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팬들의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선집들이 매년 출판되어 지금까지 열 권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SF의 대명사 온드레이 네프(1945~)가 등장합니다. 네프는 바이스와 볼니의 오랜 친구로, 70년대에 쥘 베른에 대한



온드레이 네프의 《뒤집힌 달걀》

연구로 SF계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편집 《뒤집힌 달걀 *An Inside-Out Egg*》(1985)로 유명해졌죠. 그때부터 네프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널리 알려진 체코 SF 작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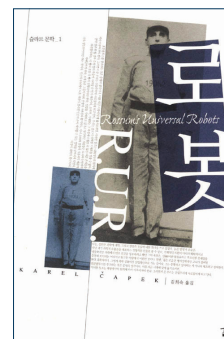
체코 SF의 시작은?

❗ 판 그렇다면 사회주의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 SF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체코 SF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 을사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SF 작품은 1907년 무명이었던 메토드 수크돌스키가 쓴 《화성에 간 러시아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SF 작품은 화성인들이 러시아 과학자와 그의 딸, 그의 친구를 납치해서 화성인의 멸종을 막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SF 팬들이 그보다 더 오래된 작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오래된 작품은 1881년 카렐 플레스카치가 쓴 《달의 생명》이 되었죠. 그 동안 작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교류가 없었

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작품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한 채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SF/판타지라 불릴 만한 작품이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열댓 명의 작가들이 꾸준히 글을 써내며 장르문학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카렐 홀차, 토마슈 흐루비 등이 대재상이나 미래 전쟁 중의 로맨스를 다루는 소설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문학비평가들은 SF 작가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디만, 카렐 차페크와 얀 바이스(1892~1972)는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얀 바이스는 2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SF와 다른 장르 소설들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몽환적인 화법으로 쓰인 SF 소설 《천 개의 층을 가진 집》(1929)이 있습니다. 카프카적인 이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안에서 길을 잃은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고 매력적인 이 이야기는 독자와 평단을 사로잡았고, 독어에서 일본어까지 2, 30여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어요.



카렐 차페크의 《로봇》

카렐 차페크, “로봇”이란 이름을 퍼뜨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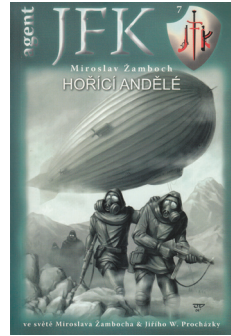
❗ 판 카렐 차페크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지가 않군요. 차페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을사 카렐 차페크는 체코 SF 역사에 있어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그가 SF 작가로 불린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체코 문학사에 있어서 차페크는 정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알려지기 전까지 차페크는 20세기 체코 작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여겨졌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도 했지요. 30년대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던 것은 노벨상 위원회가 나치 독일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의 작품들은 파시즘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니까요.

차페크는 많은 SF 작품들을 썼지만, 1920년에 출간된 그의 희곡 《로봇》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작품에서 “로봇”은 “인공 노동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봇》은 크게 인기를 얻어 곧바로 유럽 전역에 번역 소개되었고, 23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심지어 한국에서 1925년에 극작가 김우진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체코어 “로봇”은 세계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로봇》은 문학사적인 가치는 분명 있지만, 전 차페크의 다른 작품들을 더 좋아합니다. 역시 널리 번역된 《뉴트와의 전쟁》(1937)은 구성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독일에서 파시즘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

나라하게 드러난 소설로 바다에서 사는 뉴트 종족이 인류에 대하여 인류를 멸종시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도 독특하여, 뉴트족이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이나 인류의 멸망을 보도하는 기사문이 스크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우려는 2차 세계대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페크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던 1938년 가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형은 6년 후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로슬라브 잠보흐의 저서

배경이 깔려 있다고들 하지만, 블라디미르 슬렉타나 미로슬라브 잠보흐의 경우 미국 SF의 체코 버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코 SF의 특색은?

¶ 판 러시아의 SF는 과학기술 문명에 초점을 맞추고, 폴란드의 SF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SF는 스페이스 오페라의 강세가 도드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코의 SF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올사** 체코의 SF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면모를 보인 것은 우화나 풍자였습니다. 카렐 차페크는 물론이고 요제프 네스바드바와 같이 공산정권하에서 활약했던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의 SF, 특히 단편들은 공산정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은 풍자 문학이 주를 이루었지요.

그렇지만 21세기의 체코 SF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SF 번역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산정권을 경험하지 않은 신진 작가들은 풍자보다는 액션으로 가득 찬 모험 SF를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코 SF에는 철학적인

체코 SF의 외교관

¶ 판 대사님은 “체코 SF의 외무부 장관”으로도 불리십니다. 외교와 SF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올사** 폴란드의 SF 친구들은 예전부터 미국과 서유럽의 SF 작가, 편집자, 출판인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들은 폴란드 이외에 체코슬로바키아와도 교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회주의 체제의 체코슬로바키아를 탈출하여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살게 되었죠. 80년대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예전만큼 통제가 심하지는 않아서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고, 그때마다 서유럽의 SF 컨벤션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 알디스, 존 브루너, 해리 해리슨, 프레드릭 폴, 로버트 실버버그 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SF와 다른 나라의 SF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른

바 “철의 장막”을 넘어 서구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체코인으로 저는 사실상의 “체코 SF 대사”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 나라를 방문하거나 대사직을 수행할 때에 체코 SF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SF 소설들을 수집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곳이 넘는 나라를 방문했고, 어딜 가나 SF 팬이나 작가를 만나보려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서점에 가서 그 나라에서 출간된 SF 작품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SF는 물론 제각기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낮선 곳에서 SF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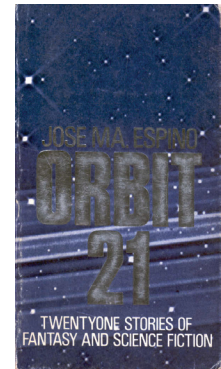
¶ 판 대사님께선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각 나라의 SF/판타지를 경험하셨는데, 재밌는 사연이나 인상 깊었던 사건을 말씀해주세요.

¶ **올사** SF가 빈약한 나라에서의 경험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상상도 못할 장소에서 SF 작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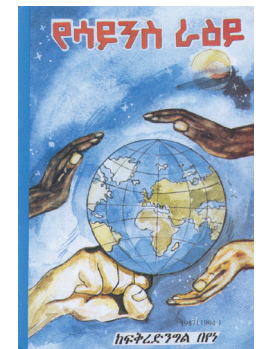
94년에 처음으로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에 필리핀에는 SF 인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우연히 필리핀의 SF 작가를 찾아낸 적이 있었는데 호세 마 에스피노라는 작가였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었지요.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체

코 공화국에서 온 SF 편집자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한 친구의 집은 장난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장소에 와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SF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함께 싸우던 미군 병사들한테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SF를 처음 쓴 필리핀 사람이 된 것이었죠.

98년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만난 한 SF 작가는 현대의 SF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생태학 관련 SF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전문적인 출판인이 없어 직



호세 마 에스피노의 <궤도>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책



나이지리아에서 도서를 구입하며

접 편집하고 인쇄한 다음에 아디스아바바의 서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판매하고 있었죠. 그가 알고 있는 SF의 전부는 쥘 베른, 스타 트렉, 코스모스 1999 정도였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크나파소의 교육부 장관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사헬의 로봇 좀비》라는 이상한 SF 소설을 썼는데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문학상을 받은 소설인데, 문학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이 소설이 왜 수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아 좀비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에는 백인에 대한 혐오와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드러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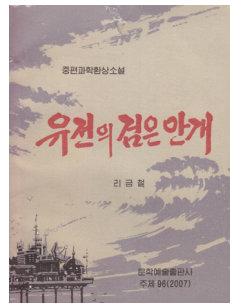
세 권 정도의 SF 소설을 쓴 가나의 코드오 바

아이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레소토라는 남아프리카의 작은 국가에서 만났는데, 그때 들려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시절 한 친구를 설득해서 작가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자 다름 아닌 마이클 크라이튼이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로버트 실버버그와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의 소설 《Postronic Man》이 한국에 출판된 적이 없다면서 꼭 출판되기를 바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 판 이웃인 중국의 SF는 어떤지요?

❗ **올사** 91년에 중국의 청두에서 열린 SF 컨벤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SF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는데, 중국 SF 시장이 얼마나 넓고 활발한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많은 작품들이 출판되고 있었죠.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중국의 SF잡지 《커쉬에웨이(科學文藝)》는 한 번에 20만 부씩 인쇄하고 있었죠.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르문학 잡지였을 테지요. 20년



북한의 SF/판타지 소설

후인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 SF는 몇몇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안에서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 판 한국의 SF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신지요?

SF를 통한 교류를 위하여

❗ **올사** 다른 언어로 번역된 한국 SF를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한국의 SF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사실은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83년부터 저는 SF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SF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SF에 대해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한국과 체코가 교류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사님께 SF란 무엇입니까?

❗ **올사** SF는 제가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좋아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이었습니다. 열다섯 살 무렵에는 SF 읽기를 가장 좋아했고, 20대에 이르러선 SF 팬덤 활동으로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서른 살까진 SF가 직업이었고,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은 최소한 “체코 SF VIP”로 최대한 SF 관련 일에 많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장르문학이 체코에서 자리 잡기까지 기여한 “살아 있는 화석”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인물로 말이지요. 1년에 한 번은 아직도 파르콘이라 불리는 체코의 SF 컨벤션에 참석합



올사 대사 편저 《체코의 뱀파이어와 SF 소설》

니다. 이제는 한 세대 어린 친구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친구와 동기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SF와 밀착된 삶을 살고 있어 SF는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SF가 없었더라면, 팬덤이 없었더라면 SF 장르에서 비롯된 모든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외교관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SF와 전 세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SF를 최대한 확장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갚아나고자 합니다.

❗ 판 대사님의 SF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유럽 현대 환상문학: 러시아와 폴란드의 SF

정보라(소설가, 번역가, 러시아·폴란드 문학박사)

제목에 “동유럽 환상문학”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 동유럽의 환상문학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가장 잘 아는 폴란드나 러시아의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문학작품의 환상적인 요소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나 정서 때문이라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환상문학이라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는 뜻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미 1700년대부터 호러나 판타지, 심지어 SF라고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장르를 따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문학작품에서 환상과 현실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경향은 현대까지 이어진다. 1800년대

후반에 엄정한 사실주의 사조가 지배했던 한 시기를 제외하면, 폴란드나 러시아의 공식적인 주류 문단에서 문학작품은 반드시 사실적이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던 시기는 없었다. 공산정권 치하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특정 문학사조가 지배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심지어 이 시기에도 SF 등 특정 환상문학 장르는 융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참신하며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폴란드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은 특히 근현대에 들어 1차 세계대전(1914년 보스니아에서 발발), 러시아의 공산혁명(1918년), 2차 세계대전(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과 이어지는 공산화, 냉전 등등 역사적인 굴곡을 심하게 겪었는데, 이 때문인지 동유럽인들은 현실 속의 부조리나 불합리, 혹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감각이 유별나게 날카롭다. 이러한 감각이 동유럽인 특유의 인간적이며 지극히 감정적인 정서와 합쳐지면 영미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학적 경향이 탄생한다. 폴란드와 러시아 문학 양쪽 모두, 20세기 이후 작품들은 장르에 관계없이 읽으면서 무릎을 칠 만큼 참신하고 기발한 발상과 엉뚱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줄거리 전개와 함께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깊이가 있는데, 이는 한국 독자들도 정서에도 잘 맞을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폴란드나 러시아 문학사를 한정된 지면 안에 전부 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20세기 이후, 동유럽적인 상상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르인 과학소설로 주제를 한정하여 주요 작가와 작품 경향 중심으로 훑어보도록 하겠다.

1. 러시아의 SF

20세기 러시아 SF 문학 발전사는 러시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18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유토피아 사상이 러시아를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에트 연방을- 지배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이런

사상을 담은 SF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로 소비에트 러시아 출신의 주인공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다른 세계로 가서 여러 가지 모험 끝에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줄거리가 많은데,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1883~1945, 《전쟁과 평화》의 톨스토이와 같은 집안의 후예다.)가 1922년에 발표한 《아엘리타》(김성일역, 지만지고전출, 2008)라는 작품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소비에트 우주비행사인 로스와 구세프가 화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디스토피아를 발견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도시 안에 갇혀 노예처럼 강제로 일해야만 하고, 이들의 희생 위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독재체제의 지배자인 투스쿠브(Tuskub)와 이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지도자 고르(Gor), 그리고 이 두 개의 대립하는 사상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투스쿠브의 딸 아엘리타가 얽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험을 거친 끝에 결국 두 “영웅적인” 소비에트 우주비행사의 노력으로 화성에는 마침내 이상향이 건설되고, 그 과정에서 아엘리타는 우주비행사 로스와 사랑에 빠진다.

사실 “우주”로 대표되는 미지의 세계를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탐사하여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거나 건설한다는 줄거리는 꼭 위에 말한 공산주의 선전물로 읽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모험소설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이야기이다. 20세기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대 러시아에서는 여기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덧입혀 특유의 SF 장르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위에 말한 공산혁명 외에도 냉전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다. 신무기 개발부터 위성 발사나 달 탐험까지 모든 과학 분야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시대에,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과학적 발상을 문학에도 소개한다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참신한 기술 혹은 과학적 발상을 세세하게 설정하고 여기에 고전적인 모험소설의 즐거리를 대입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SF 작가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작품 세계이다. 아르게까지 나타노비치 스트루가츠키(Arkadii Natanovich Strugatskii, 1925~1991)와 보리스 나타노비치 스트루가츠키(Boris Natanovich Strugatskii, 1933~, 러시아인의 중간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아버지가 같은 형제는 당연히 중간 이름도 같다.)는 1958년에 단편 <바깥으로부터 *Izвне*>를 발표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이후 장편으로 개작되었다.) 이후 1990년까지 둘이 함께, 혹은 따로 발표한 작품이 장편만 27권, 단편집이 25권 정도,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만 열두 작품이다. 이 수많은 작품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중 ‘폴덴(Polden)’ 시리즈가 앞에서 말한 과학적 발상과 모험소설의 즐거리를 엮은 대표적인 스트루가츠키식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폴덴’이란 러시아어로 “정오” 혹은 “한

낮”이라는 뜻인데, 작품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체제하에서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지능을 가진 종족도 공존하는 일종의 이상사회이다. 스트루가츠키 형제는 《폴덴, 22세기 *Polden, XXII veka*》(1961년 집필, 1967년 출간)를 필두로 《탈출 시도 *Popytka k begstvu*》(1962), 《신이 되기는 힘들다 *Trudno byt' bogom*》(1963)를 거쳐 《파도가 바람을 꺼버린다 *Volny gasiat veter*》(1986)까지 약 20년에 걸쳐 이런 과학문명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에 관한 시리즈를 집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라고 항상 이렇게 체제 순응적인 SF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빅토르 펠레빈(Viktor Olegovich Pelevin, 1962~)의 1991년작 《오몬 라 *Omon Ra*》는 SF의 형식을 빌린 사회풍자소설에 더 가까운데, 우주소년단에 가입한 주인공의 눈을 통해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행태를 보여준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우주탐험이 진행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고, 게다가 신체 적응 명목으로 청소년들의 다리를 잘라 불구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수술이 공식적인 훈련 절차로 존재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주인공은 결국 자신이 달이라 믿는 어떤 장소에 “착륙”하지만, 그곳은 어쩐지 버려진 지하철역과 비슷하게 생겼다. 작품의 결미에서 주인공은 아무리 보아도 자전거처럼 생긴 달 탐사 기구를 타고 어둠 속에서 혼자 출구를 찾아 떠난다. 이는 작품이 출간되던 1991년,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삶을 처

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당시 러시아인 모두의 초상이라 하겠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펠레빈은 본격 SF 작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형식을 통해 유머러스하면서도 참신한 방식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풍자 작가이다. 《오몬 라》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SF적인 재미가 있는 소설로서, 러시아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이다.

이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작가와 작품이 많이 있지만, 대표 작가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자.

2. 폴란드의 SF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접촉이 있었던 폴란드는 그러나 문학작품을 들여다보면 러시아와는 또 다른 성격을 보인다. 폴란드 문학은 대체로 러시아 문학보다 좀 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면이 있는데, 이러한 폴란드 문학계에 20세기 들어 기계와 과학기술을 다루는 SF라는 장르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1952년 공산화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와 냉전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장르 안에서도 두 나라의 작품 경향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러시아 SF소설이 유토피아적인 사상과 정밀한 기술적, 과학적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폴란드 SF는 반대로 디스

토피아적인 발상과, 과학보다는 철학적인 주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폴란드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주자로는 야누슈 자이델(Janusz Zajdel, 1938~1985)을 꼽을 수 있다. 자이델은 원래 본격 SF 작가로 출발했으나, 그의 소설은 정밀한 과학기술이나 참신한 과학적 발상보다도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고립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사회적 과학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크시 행성에 대한 숨김없는 진실 *Cala prawda o planecie Ksi*》(1983)을 들 수 있다. 지구에서 다른 은하계에 있는 “크시” 행성으로 탐험단을 보내는데, 여행 도중에 반란이 일어나 탐험단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떨어지고 지구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된다. 그리하여 포로가 된 탐험단은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일부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탈출 기회를 모색하고, 일부는 억압된 생활을 하면서 구출하러 와주지 않는 지구의 본부를 중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50년이 흐른 후에 지구에서 마침내 구조대가 오는데, 크시 행성에 도착해보니 탐험단의 일부는 지구로 돌아가고 않고 남아 있으려 하고, 일부는 테러리스트가 지배하는 이 크시 행성을 지구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이 소설은 본래 2부가 계획되었으나 작가 사망으로 아쉽게도 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즐거리에서 보듯이 우주탐험이라는 SF적인 소재에 자이델 자신이 천착하던 디스토피

아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주제적으로나 소재적으로나 작가의 대표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하겠다. 자이델은 사망 직후인 1984년에 펜들이 그의 이름을 딴 환상문학상인 “야누슈 자이델 상”을 자발적으로 제정했으며, 이 상은 지금까지도 폴란드 환상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알려져 있다.

자이델은 사실 폴란드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폴란드 SF 작가로는 스타니스와프 램(Stanislaw Lem, 1921~2006)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1961년작 《솔라리스》가 1992년경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사이버리아드》(램 걸작선, 송경아 옮김, 오멜라스, 2008)와 《우주비행사 피루스》(전대호 옮김, 오멜라스, 2009)가 번역되었다. 《솔라리스》를 제외한 램의 다른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최근 들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셈이지만, 램은 1946년 《화성에서 온 사람 *Człowiek z Marsa*》부터 시작하여 2009년 사후 출간된 《서투른 범죄자 *Skocony krymynal*》까지 거의 60권에 달하는 SF 장편, 단편집, 에세이, 비평을 남겼다.

램은 과학소설의 형식에 충실하면서도 “인간이 이제까지 알고 익숙해 있던 인식과 지성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는 다분히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가이다. 러시아와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가장 익숙할 것이라 생

각되는 《솔라리스》를 예로 들자면, 이 소설은 미지의 외계 행성에 고립된 상태에서 무의식 혹은 죄의식 속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공포스러운 극단적 상황을 다룬다. 그리하여 우주선을 타고 외계의 행성에 지구의 탐험단을 구조하러 간다는 전형적인 SF의 줄거리 안에서, 현실이란 과연 내가 인식할 때만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주관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과는 별개의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도출된다. 이는 SF 영화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로,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도 《매트릭스》일 것이다. 혹은 위에 언급한 상황과 소재를 거의 똑같이 답습하는 영화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이 1990년대 이후 작품인데 반해, 램이 《솔라리스》를 통하여 같은 주제를 SF에서 처음 다룬 것은 이보다 30여 년 전인 1961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솔라리스》는 읽기 쉬운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주선에 진공관을 사용한다는 묘사 등 60년대적인 감각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가끔 눈에 띈다. 그러나 SF라는 장르와 철학적인 주제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선구적인 작품이다.

램의 작품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출간된 《우주비행사 피루스》는 비슷하게 극단적인 상황을 모험적인 분위기에서 약간의 유머를 섞어 변주하는 일종의 성장소설 연작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피루스의 우주비행사 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데, 어려운 비행사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과제부터 우주에 혼자 나갔는데 우주선이 고장 나는 사건 등 갖가지 어려

운 상황 속에서 피루스는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히 생각하여 결국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우주비행사 피루스》연작은 《솔라리스》에 비하면 마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한 고립된 인간이라는 주제와, 군데군데 드러나는 부조리한 인간사에 대한 성찰을 염두에 두며 읽으면 더욱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저명한 SF 작가를 소개하고 끝맺을까 한다. 야첵 두카이(Jacek Dukaj)는 1974년생으로, 만 스물세 살 되던 1997년 대체역사물 《크사브라스 바주린 *Xavras Wazryn*》으로 데뷔하여 이제까지 장편 열 권과 단편집 두 권을 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자이델 상을 2000년부터 다섯 번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폴란드인 최초로 유럽연합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문학상을 휩쓸고 있다. 또한 단편 《대성당 *Katedra*》(2002)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2003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 외국어 부문 후보로 지명되어, 당시 폴란드의 모든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광고 대신 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센세이션을 빚기도 했다.

이 단편 《대성당》이 실린 것은 2002년에 발간된 《신앙 없는 자들의 땅에서 *W kraju niewiernych*》라는 단편집인데, 이 책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SF 단편이 여덟 편 실려 있다. 《대성당》의 주인공은 사제이고, 그가 우주를 탐험하는 이유는 신의 존재를 찾

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다른 행성에서 주인공은 동료들과 함께 차레로 그 행성에 뿌리박은 “대성당”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저주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소원대로 신을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종교와 SF라는 조합 자체도 특이하지만,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결말 또한 충격적이다. (애니메이션 버전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대사는 없고 음악과 화면 뿐이라 폴란드어를 모르는 독자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A8GyHvBogrI>) 폴란드는 10세기부터 가톨릭을 국교로 하여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 정서 속에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기계적인 발상에 치중하기보다 인간과 사회, 신과 세계에 대해 사유하는 독특하게 철학적인 경향이 SF를 비롯한 환상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일 것이다.

영미권에 이어 이제는 동유럽의 SF도 우리나라에 속속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동유럽의 문학작품은 SF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영미권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정서를 보인다. 기발하면서 완성도 높은 새로운 작품들이 한국에도 소개된다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다. 아무쪼록 더 많은 작품들이 더 충실하게 번역되어, 독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장르문학의 지평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